

# 사교육의 대학진학 효과: 중2부터 대학 1학년까지 사교육 경험 종단분석

양 정 호\*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 진학시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사교육이 대학진학에 미친 효과를 종단분석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2004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 184명이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도 이후 사교육 참여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사교육비 지출도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최소 3년이상 사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석결과, 사교육의 대학진학 효과는 미진학 대비 2년제 전문대학에서는 낮게 나타났으나 2년제 전문대학보다 4년제 일반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교육이 대학진학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사교육과 대학진학에 대한 적절한 교육정책 수립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I. 서론

현재 한국교육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한 가지 꼽으라면 양극화 현상일 것이다. 처음에 교육양극화란 용어가 등장했을 때는 일반인을 비롯한 전문가에게조차도 익숙하지 않은 용어였다. 하지만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이후에 청와대의 '교육양극화, 그리고 게임의 법칙', 교육인적자원부의 '희망한국 2006 교육격차 해소 원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 교육격차 해소 방안' 발표가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되면서 짧은 기간안에 일반인에게도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어 버렸다.

지금까지의 교육양극화 논의는 사회양극화 논의에서 시작된 가난의 대물림, 상위 20% 대 하위 20%간의 격차 등의 표현이 교육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논의전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반 국민의 믿음은 가난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속담처럼 배움 그 자체가 사회적 지위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교육양극화 현상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믿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교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과거처럼 교육의 역할이 지위상승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지위고착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 성균관대학교 교수

여러 교육현안 중에서 교육양극화의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사교육과 대학진학 분야이다. 현재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생각은 일종의 선택사항이라기 보다는 공교육과 같은 필수사항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요즘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교육양극화 문제가 사교육에서도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우천식·이경영, 2005). 즉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계층이 상류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하류층과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영, 2004). 학부모들이 자녀의 사교육에 집착하는 이유는 사교육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두 가지로 파악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교육이 대학진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와 지금처럼 사교육이 확대된 경우에 최소한 사교육을 받은 다른 학생보다는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지금의 상황으로는 일반 학부모가 사교육이 대학진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바꾸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의 수행된 사교육관련 연구의 문제는 사교육과 대학진학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즉 사교육이 대학진학에 영향을 주는 지 아니면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교육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EDI, KDI, KIEP 등의 국책연구기관과 SERI같은 민간 연구기관을 포함해서 정부, 교육기관, 교육연구자들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정책은 모두 사교육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지 일반 학부모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교육과 대학진학과의 관련성을 분석해서 제시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즉 현재의 사교육 또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지 실증적인 분석에 기초한 정책제시보다는 단순히 사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대국민 호소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동일가구를 추적한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전국의 도시지역 거주 5,000가구에 대한 사교육과 대학진학관련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각 조사연도별 가구별 종단적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종단연구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사교육과 대학진학과의 종단연구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수집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사교육 경험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종단분석을 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교육의 현황 및 변화

사교육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진행된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비해서 1990년도 후반기로 갈수록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표 1>에서와 같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 중학교 학생의 1980년도 사교육 참여비율은 20.3%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후에 꾸준히 증가해서 2003년도 조사에서는 75.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 과거의 엄격한 사교육 금지조치가 점차 완화되다가 2000년 4월 27일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 판결이 나면서 사교육이 지금과 같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표 1>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 비율(%)

학교급별	1980	1990	1997		1999	2000		2001	2003
			한국교육 재정경제학회	한국교육 개발원	교육인적 자원부	한국교육개 발원	교육인적자 원부	한국교육 개발원	한국교육 개발원
초등학교	12.9	-	81.2	72.9	70.1	73.5	70.7	70.5	83.1
중학교	20.3	31.0	55.3	56.0	62.8	50.7	59.5	63.9	75.3
고등학교	26.2	12.6	27.2	32.0	47.2	39.8	35.6	48.3	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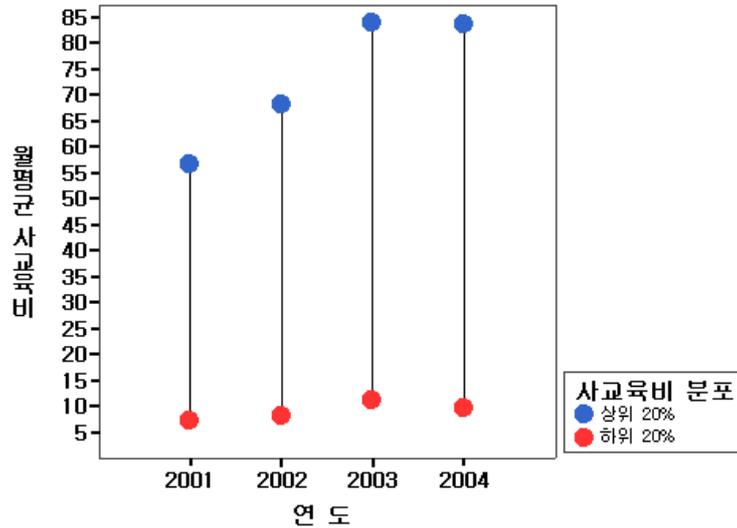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3.11.27). 사교육비 경감방안 보도자료.

최근의 사교육 참여비율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사교육비 증가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2003년도 사교육비 규모는 총 13조 6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와 연간 총 교육예산의 55%에 이르고 있다(조선일보, 2003.10 23; 한국교육개발원, 2003.11.19). 2003년도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1998년도에 비해서는 8.6%, 2001년도에 비해서는 무려 23.6%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전체 사교육비에서 과외비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과외비 자료가 이용 가능한 1977년에는 2천800억 원이었는데 이후 1990년대 후반에 10조원을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 2001년에는 8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었다(양정호, 2005).

최근 한국교육개발원(2003.11.19)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학교급별로 지역별로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사교육비로 초등학생은 20만 9천원, 중학생 27만 6천원, 일반계 고등학생 29만 8천원, 실업계 고등학생 1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 입학 준비하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다른 학생들에 비해 많이 지출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교육비의 거주지역별 격차인데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의 연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478만원인데 반해서 읍면지역의 학생들은 강남학생들의 반 정도인 203만원만을 지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간 사교육비 지출 편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동일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한 중단 연구(양정호, 2006)에서도 계층간 사교육비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정도에 따라 전체집단을 5개로 구분한 5분위 분포를 살펴보면, 사교육비 지출은 지출이 적은 1분위에서 지출이 많은 5분위로 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지고 각 분위별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2004년도를 살펴보면, 1분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9.8만원, 3분위는 29.7만원, 5분위는 83.8만원으로 사교

육비 지출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교육비 지출 하위 20%와 상위 20% 집단간의 사교육비 격차는 2001년에 7.6배에서 계속 증가해서 2004년에는 8.6배로 늘어났다.



<그림 1> 연도별 가구당 상위 20%와 하위 20% 사교육비 분포

## 2. 사교육과 대학진학에 대한 선행연구

지금까지 수행된 사교육과 대학진학과 관련된 연구들 대부분은 서로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라기 보다는 사교육 또는 대학진학 각각만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어 왔다. 즉 대학진학관련 연구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특성분석이나 영향요인을 주로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사교육관련 연구도 사교육의 실태나 유형분석, 사교육비 추세나 관련요인 분석에 집중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사교육과 대학진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렵고 본 연구와 같이 사교육 경험에 대한 종단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좀더 실증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사교육과 학업성적 또는 수능성적, 사교육과 대학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그나마 몇 편 수행된 정도이다(김태종·김태일, 2004; 이명현·김진영, 2005; 이종태 외, 2002).

최근까지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관련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먼저 가구의 특성 및 학생의 배경변수가 학생들의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방하남·김기현, 2002, 2003; 김영화, 1993).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자연히 소득도 높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은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50%이상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각 가정에서 지출해야 할 총 사교육비 비중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학이전의

초중등교육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대학진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이성림, 2002, 2005; 이승신, 2002; 이영, 2004; 이정환, 2002; 이주호·김선웅, 2002). 또한 각 학생들이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에 따라서 대학진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여학생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방하남·김기현, 2002, 2003).

그리고 학생 각각의 개인적인 배경요인에 더붙어서 다양한 지역특성이나 학교관련 특성들도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김영화, 1993). 최근 서울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출신지역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서울지역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03). 대학진학과 관련된 중요한 학교관련 변수는 고등학교 학교유형이다. 즉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다니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대학진학이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된다(김영화, 1993; 방하남, 김기현, 2002). 대체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강하고 일반계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들은 4년제 일반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학교 진학유형도 다르게 될 수밖에 없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대학진학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바로 사교육에 대한 것이다. 현재 사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2001년부터 2004까지의 사교육비를 분석한 결과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소득대비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저소득층과 비교할 때, 총 사교육비 금액은 약 9배정도이므로 소득계층간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사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대학진학 기회도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의 고착으로 인해서 교육 또는 대학진학을 통한 사회이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이 대학진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런 사교육과 대학진학과의 관련 가능성을 거의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사교육 경험이 대학진학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종단분석을 하였다.

###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04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이 지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후인 2005년의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종단연구이다. 즉 종단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서 5년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의 사교육 경험과 대학진학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자녀들의 사교육 참여유형 및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 사교육 참여형태가 대학 미진학집단, 진학집단 같은 각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가?
- 중2부터 고3까지의 사교육 경험이 대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Ⅲ. 연구방법

#### 1. 자료 및 표집

본 연구에서 사교육의 대학진학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년도부터 최근 2005년도까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조사한 종단적인 자료이다. 한국노동패널은 최초년도에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5,000가구를 패널표본가구로 선정하여 매년 동 가구에 속한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노동시장 이동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남재량 외, 2006). 특히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각 가구의 자녀당 월간 사교육비, 사교육종류, 사교육 횟수, 사교육 시간에 대한 자세한 사교육 활동에 대한 횡단 및 종단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전국 도시가구의 사교육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하지만 사교육관련 자료수집은 해당 연도에 따라서 약간씩 내용이나 형태에서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3차년도 자료(2000) 이후부터 사교육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였고, 2차년도 자료에는 사교육관련 자료가 수집되지 않았으며 1차년도 자료(1998)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에 대한 제한적인 사교육 자료만이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사교육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최근에 수집된 자료가 2005년도 8차 자료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을 분석하기 위해 이전 년도인 2004년 7차 자료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이 7차년도에 고3인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2000년도인 3차까지 역으로 추적해서 사교육 관련 변수들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2004년도에 고3인 학생들이 이후에 대학에 진학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즉 2004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때까지의 사교육 경험 여부를 파악하였고 이런 사교육 경험여부가 일년 후인 2005년의 대학진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 표 2 >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최종분석 자료 비교(학교유형 포함)

	중2	중3	고1	고2	고3	대학진학
조사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조사차수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사례수	165	161	163	172	184	167
학교유형					일반계(131) 실업계(46) 기타(4)	4년제(75) 2년제(33) 미진학(60)
결측치	19	23	21	12	0	17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4년도 고등학교 3학년을 기준을 할 때 184명의 학생자료이다. 이 중에서 2005년도에 대학진학과 관련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총 167명이다.

## 2. 측정변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선정한 대학진학 여부와 개인 및 가구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사교육과 대학진학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독립변수들을 설정하였다. 각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표 3>과 같다.

< 표 3 >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가구 및 지역수준 변수의 기술통계치 및 변수설명

변수	사례수	변수 설명
<b>사교육 효과 종단자료</b>		
대학진학 여부(2005, 8차)	167	2004년 고3인 학생의 4년제, 전문대, 비진학 여부
고3 사교육 자료(2004, 7차)	184	2004년 고3인 학생 모두(최종 분석자료 기준년도)
고2 사교육 자료(2003, 6차)	172	2004년 고3인 학생의 고2 자료
고1 사교육 자료(2002, 5차)	163	2004년 고3인 학생의 고1 자료
중3 사교육 자료(2001, 4차)	161	2004년 고3인 학생의 중3 자료
중2 사교육 자료(2000, 3차)	165	2004년 고3인 학생의 중2 자료
<b>사교육 자료 형태</b>		
사교육 이용여부	연도별 다름	사교육 이용 여부
사교육 이용기관 수	연도별 다름	사교육 이용 기관의 총 수
사교육 유형	연도별 다름	학원, 과외, 학습지 등의 유형
월평균 사교육비	연도별 다름	각 학생당 월평균 총 사교육비
사교육 이용 총 연도	184	각 학생의 중2부터 고3까지 5년간 사교육 이용 총 연도
사교육 이용 연도 유형	184	각 학생의 5년간 사교육 이용 유형(이용 안함=0, 1-2년=1, 3년이상=2)
<b>가구 및 개인배경 자료</b>		
학생성별	184	여성=1, 남성=2
가구주교육수준	184	가구주의 총 교육연수
가구총소득	177	월평균 가구 총 실질소득(ln)
거주지역	178	서울시=1, 광역시=2, 도=3
고등학교형태	181	일반계=1, 실업계=2, 기타=3

자료 : 한국노동패널 3-8차 조사.

## 가.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2004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이 다음 해인 2005년도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했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005년도에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에 가구원의 교육수준에 대한 항목이 있다. 특히 개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의 이름과 유형, 그리고 전공까지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진학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미진학, 2년 또는 3년제 대학, 4년 또는 6년제 대학 등의 세 가지로 진학유형을 구분하였다. 2004년도에 고3인 학생 중에서 다음 해의 진학유형을 살펴보면 184명 중에서 75명이 4년제 일반대학에 진학하였고 2년 또는 3년제 전문대학에는 33명, 미진학은 60명이었고 추적이 되지 않은 학생은 모두 17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것을 알 수 있다.

## 나. 개인 및 가구관련 변수

개인 및 가구관련 변수들은 개인 및 가구관련 배경변수, 거주지역 및 고등학교 유형, 사교육 변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배경 또는 인구학적 변수들은 해당 학생이 남학생 또는 여학생인지,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구 월평균 총소득 등이다. 가구 월평균 총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등 각 항목별 가구소득을 합한 총소득이다. 거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 지역배경 변수는 거주지역을 서울시, 광역시, 도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학교형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유형을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기타로 구분해 사용하였다. 특히 대학진학은 각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2004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인 184명 중에서 일반계에는 131명, 실업계는 46명, 특목고를 포함한 기타 고등학교에는 4명이 다니고 있었다. 이후에 분석에서는 기타 고등학교 유형의 사례수가 적고 학교의 형태가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와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계에 포함시켜서 분석하였다.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2000년 3차부터 2004년 7차까지 사교육 이용여부, 사교육 이용기관 수, 사교육 유형, 월평균 사교육비 등이 조사되었다. 다만 2003년 6차에서만 사교육 이용기관 수와 사교육 유형이 조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교육으로 정의한 유형은 설문지에서 사교육이라고 정의한 항목들인 학원, 개인 또는 그룹과의, 학습지, 방과후 교내 보충학습, 방과후 교실, 어학연수, 인터넷(온라인 교육) 유료 강좌와 기타 사교육 형태를 모두 사교육에 포함시켜서 분석하였다. 실제로 사례수를 보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원, 과외, 학습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사교육 효과 변수로는 5년간의 사교육 이용 총 연도 수의 연속변수와 사교육 이용 연도를 한 해도 이용 안함, 1-2년 이용함, 3년 이상 이용함으로 구분한 범주변수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년간의 사교육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어떤 대학에 진학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는 매년 동일한 가구의 사교육관련 정보를 종단적으로 수집한 자료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교육의 대학진학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종속변수인 대학진학 유형비교가 미진학 대 2년제 전문대, 미진학 대 4년제 대학, 2년제 전문대 대 4년제 대학 등의 세가지 형태의 비교분석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이분변수의 분석시 이용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다분변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교육의 대학진학 효과를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사교육 경험이 각 학생들의 대학진학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사교육 참여형태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사교육 참여 형태의 변화 추이

우선 2004년도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유형 및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 4>에서 각 연도별 사교육 관련 다양한 기술통계치를 제시하였다.

2004년에 고3인 184명의 사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대체로 약 50%이상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교육 참여비율은 중2때 58.5%였고 이후 50%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고2때 60.2%로 늘어난 이후 고3에서는 43.3%로 감소하였다. 아마도 고3에서는 이미 대학진학 여부가 어느정도 결정되기도 하며 사교육보다는 집중적인 정리가 필요한 시기여서 감소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기관 수는 중2때 최대 4개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1개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2003년도에는 사교육 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서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없었다.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원이나 과외 또는 학습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이나 그룹과외를 받는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학생당 사교육비의 월평균 지출은 중학교 2학년에서는 17만 5천원이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러서는 45만 4천원으로 거의 2.6배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난 것은 월평균 최대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고등학교에서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중학교에서는 최대 사교육비가 80만원으로 나타났

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최대 30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4>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사교육 참여 형태 변화 비교

	중2	중3	고1	고2	고3
조사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조사차수	3차	4차	5차	6차	7차
사례수	165	161	163	172	184
사교육 이용여부					
이용안함	68	64	74	66	103
이용함	96	94	84	100	79
사교육 이용기관 수					
0개	68	64	74		103
1개	79	73	72		71
2개	12	18	9		8
3개	4	3	3		
4개	1				
사교육 유형	87	80	62(+3)		56(+1)
학원	4(+4)***	7(+4)	10(+2)		16(+3)
개인·그룹과외	3(+3)	4(+7)	10(+3)		1(+1)
학습지		(+2)	2		
방과후 교내 보충학습*					
방과후 교실**	1				
어학연수					1
인터넷 유료 강좌					4
기타	1	3			1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평균	17.5	19.9	29.6	37.6	45.4
최소값	2	4	2	3	3
최대값	80	80	300	150	262

\*방과후 교내 보충학습(만6세 이상으로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학습을 하는 경우)

\*\*방과후 교실(만6세 이상으로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 지도, 보충학습 등을 하는 것)

\*\*()안의 +는 각 학생이 중복해서 사교육을 수강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추가될 수 있는 숫자임

사교육 이용형태를 대학진학과 관련해서 좀더 살펴보기 위해 대학진학 형태별 사교육 이용 연수를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5>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대학진학 형태별 사교육 이용 총 년도

사교육 이용 총 년도	전체	미진학	2년제대학	4년제 대학	결측치
0	32(17.4)	13(22.0)	8(24.2)	7(9.3)	4(23.5)
1	32(17.4)	12(20.3)	8(24.2)	8(10.7)	4(23.5)
2	30(16.3)	8(13.6)	7(21.2)	14(18.7)	1(5.9)
3	31(16.8)	5(8.5)	5(15.2)	18(24.0)	3(17.6)
4	27(14.7)	8(13.6)	2(6.1)	13(17.3)	4(23.5)
5	32(17.4)	13(22.0)	3(9.1)	15(20.0)	1(5.9)
Total	184(100.0)	59(100.0)	33(100.0)	75(100.0)	17(100.0)

지난 5년간 사교육을 이용한 총 년도를 계산해보면 한 해도 사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은 17.4%로 나타났고 1년부터 5년 모두 사용한 경우의 분포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매년도마다 사교육을 이용한 학생도 전체 중에서 32명인 것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대학진학 형태에 따라서 사교육을 받은 총 년수를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교육 이용 형태가 양극단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즉 사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과 5년간 모두 사교육을 받은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2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사교육 이용유형은 사교육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사교육을 받은 년도가 2년 미만이 거의 70%에 이르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4년제 대학 진학자들의 사교육 이용 총 년도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아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년 이상 사교육을 받은 비율이 61%로 나타났다. 즉 4년제 일반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사교육을 꾸준히 받아온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유형을 좀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중2부터 고3까지의 모든 시기에 사교육을 받은 자료가 있는 학생들을 분석해보면 <표 6>과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사교육을 이용한 학생은 총 32명인데 반해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학생은 단지 17명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교육을 꾸준히 받지 않은 학생들의 비율은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교육이 학생들의 하루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표 6>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5년간 사교육 참여 형태(이용함: O, 이용안함: X)

중2	중3	고1	고2	고3		
2000	2001	2002	2003	2004		
3차	4차	5차	6차	7차	사례수	비율(%)
O	O	O	O	O	32	23.4
O	O	O	O	X	11	8.0
O	O	O	X	X	5	3.6
O	O	X	O	O	5	3.6
O	O	X	O	X	2	1.5
O	O	X	X	O	4	2.9
O	O	X	X	X	3	2.2
O	X	O	O	O	6	4.4
O	X	O	O	X	3	2.2
O	X	O	X	O	1	0.7
O	X	O	X	X	2	1.5
O	X	X	O	X	2	1.5
O	X	X	X	O	1	0.7
O	X	X	X	X	5	3.6
X	O	O	O	O	1	0.7
X	O	O	O	X	5	3.6
X	O	O	X	O	2	1.5
X	O	O	X	X	2	1.5
X	O	X	O	O	3	2.2
X	O	X	O	X	2	1.5
X	O	X	X	X	5	3.6
X	X	O	O	O	1	0.7
X	X	O	O	X	2	1.5
X	X	O	X	X	2	1.5
X	X	X	O	O	2	1.5
X	X	X	O	X	8	5.8
X	X	X	X	O	3	2.2
X	X	X	X	X	17	12.4
				계	137	100.0

## 2. 사교육의 대학진학 효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우선 사교육이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2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모형 1은 사교육을 받은 총 연도 효과여부, 모형 2는 사교육을 받은 총 연도를 유형별로 한 해도 받지 않은 경우, 1-2년 받은 경우, 3년 이상 받은 경우로 구분해서 사교육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진학 때까지의 사교육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 표 7 >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대학진학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사교육 총 연도 효과)			모형 2 (사교육 연도 유형 효과)		
	2년제/미진학	4년제/미진학	4년제/2년제	2년제/미진학	4년제/미진학	4년제/2년제
상수	-4.32*	-3.54*	.78	-3.82*	-3.35*	.47
<b>배경변수</b>						
학생성별(남성)	.61	.41	-.20	.54	.34	-.21
가구주교육수준	-.07	-.01	.06	-.07	-.01	.06
가구총소득	1.02*	.52~	-.50	.87*	.45	-.42
서울시	-.52	-.34	.18	-.56	-.37	.19
광역시	-.36	.64	1.00~	-.33	.66	.99~
도(준거집단)						
고교유형(일반계, 기타)	-.09	1.27*	1.37*	-.21	1.20*	1.41**
<b>사교육 효과</b>						
사교육 이용 총 연도 수	-.41*	-.05	.36*			
사교육 이용 연도 유형						
0년(준거집단)						
1-2년				-.04	.26	.30
3년이상				-1.16~	.27	1.43~
N		167			167	
-2로그우도		296.65			294.41	
Nagelkerke R <sup>2</sup>		.217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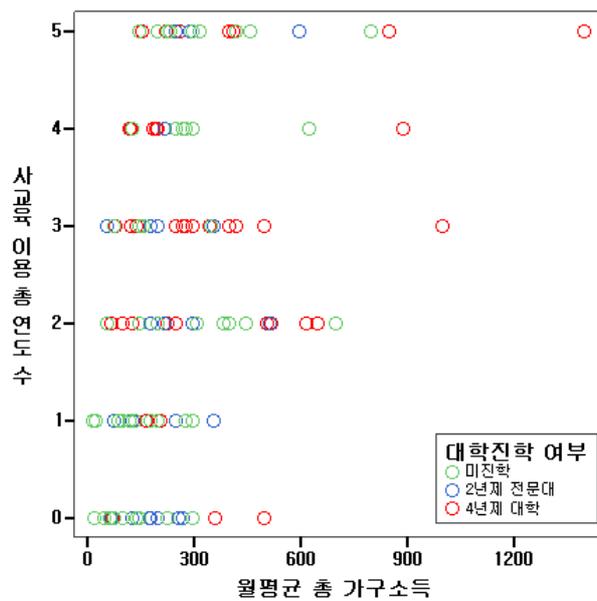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모형 1을 먼저 살펴보면, 미진학 대비 2년제나 4년제 대학에 진학할 때 가구의 총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구의 소득이 높은 학생들이 대학에 주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진학 대 4년제 또는 2년제 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진학형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계나 특목고를 포함한 기타형태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실업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대학 진학 전 5년간에 사교육을 받아 온 총 연도의 효과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교육을 매년도마다 지속적으로 받아 온 학생이 미진학 대신 2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게 나타난 반면에 2년제 대학보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 온 학생들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일반 4년제 대학생들이 대부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실업계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사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은 학생들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이한 점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는 지속적인 사교육 경험이 별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좀더 세부적으로 사교육을 받은 총 연도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경우에 대학의 진학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모형 2의 결과를 보면, 배경변수의 영향에서는 모형 1의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진학 대비 2년제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 가구 총소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진학 또는 2년제 대학 대비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나 특목고를 포함한 기타 고등학교에 다닌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집중적으로 다년간 받아온 경우를 0년, 1-2년, 3년 이상으로 구분해서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한번도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미진학 보다는 2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은 3년 이상 사교육을 받은 경우에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2년제 대학보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은 사교육을 3년이상 집중적으로 받은 경우에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사교육을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때까지 5년 중에서 최소 3년이상 매년 연속적으로 또는 비연속적으로 받은 학생들이 4년제 대학에 주로 진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사교육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대학진학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교육격차 또는 교육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대학 진학에 사교육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진학과 사교육이 관련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사교육은 소비자가 일정부분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자녀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교육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회계층에서 가능한 일이다. 만약에 대학에 진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았다면 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의 대학진학 가능성은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교육격차 또는 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학진학 여부에 따른 사교육 총 이용 연도와 각 가구의 월평균 총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대학진학별 사교육 이용 총 연도와 가구소득간의 관계

위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대학진학이 사교육과 가구소득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일년 이상 받은 것을 알 수 있고 300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의 학생들은 소수의 몇 명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자녀는 모두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지 여부가 점차 가구소득 그리고 사교육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확산되고 있는 사교육이 대학진학에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집한 종단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도부터 사교육은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의 이용기관의 수는 대부분 1개 또는 2개이었으며 학원이나 과외를 주로 하고 있었다. 사교육비 지출은 매년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좀더 구체적으로 사교육 참여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대학진학별 사교육 참여형태를 비교하면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최소 3년이상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무려 61%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사교육을 꾸준히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교육과 대학진학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사교육의 대학진학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중2부터 고3까지 사교육을 이용한 총 연도와 사교육 이용 총 연도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사교육과 대학진학과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사교육 이용 총 연도가 증가할수록 미진학 대 2년제 전문대 진학 가능성은 낮아지는 반면에 2년제 대학에 비해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이용 형태를 5년간 한 해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와 3년 이상 이용한 경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3년 이상 이용한 학생들이 미진학 대비 2년제 전문대 진학 가능성은 낮았지만 2년제 전문대 보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교육의 효과는 미진학자와의 차이는 크게 없었으나 2년제 대학에 진학하는지 또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지에는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사교육 효과의 대학진학 효과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사교육과 대학진학과는 일정 부분에 관련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사교육은 일종의 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교육의 대학진학 영향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특히 사교육 또는 사교육비의 지출 격차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단간 또는 계층간에 따라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정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계층에 따른 교육기회 획득인 대학진학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자연히 사회적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양정호, 2003, 2004b, 2006; 전우홍·양정호, 2004). 특히 최근의 2003년도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 중에서 약 40%정도의 학생이 서울 출신이고 아버지 직업이 전문직 계통인 경우도 약 40%에 이르는 것에서도 이러한 계층간의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03).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교육 또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 학교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양정호, 2004a). 즉 학교교육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마치 사교육에 기인한다는 관점에서 사교육의 약화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각급학교의 약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교육정책 수립시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 정부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교육대책이 기대된 것만큼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 사교육과 관련된 교육정책 수립시에 기존의 두 기관간의 대립 또는 경쟁관계의 시각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각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기존의 정책처럼 사교육이 효과가 없다는 측면만의 부각보다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교육의 확대와 일반 국민이 왜 사교육에 집착하게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국민에 대한 호소성 정책보다는 실증적인 자료에 기초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사교육과 공교육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사교육의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기보다는 학교에서 수행되는 공교육과 더불어서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양정호, 2003). 최근 사교육과 관련되어 먼저 논의되는 것은 사교육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면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의 비정상적 운영의 주요요인이라거나 사교육비의 확대만을 유발한다거나 단순 반복학습과 선행학습만을 강조하는 점 등이다. 이렇게 기존의 사교육 대처방안처럼 단순히 사교육을 억제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양성화를 통해 필요시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사교육을 학교교육내로 흡수해서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교육기관의 한 형태로 사교육기관에 공교육의 일정부분을 맡기는 형태(예, 차터스쿨)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우수한 학원을 변형된 형태의 자립형 사립학교 또는 대안학교로 운영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일본처럼 일정기준이 되면 공교육기관의 한 형태로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정진환, 2004). 교사들간의 교류차원에서 볼 때, 현 입시제도에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한 사교육기관의 강사들을 초빙해서 공교육기관 교원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수업방식 및 사례의 발굴을 통해 학교교육과 사교육이 서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4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종단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였다. 앞으로 자료가 계속해서 조사되면 다양한 집단별 사교육과 대학진학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교육을 이용한 총 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하였는데 각 학생들의 사교육 수강, 비수강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다양한 유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각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시기별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생존 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해서 현재 연구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1). 2000년도 사교육비(과외비)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교육부.
- 김영철·양승실·김영화·이주호(2001). “사교육비 해소 방안: 과열 과외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 연구, 19(3), 149-180.
- 김영화(1993). 한국의 교육불평등. 서울: 교육과학사.
- 김지경(2003).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별 비교.” KLIPS Research Brief, 4, 1-11.
- 김지경(2004).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15(3), 67-86.
- 김태중, 김태일(2004). “과외의 학업성취도 효과.” 우천식 외. 사교육비의 투자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남재량 외(2006). 제7차(2004)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방하남·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별 불평등의 분석.” 한국 사회학, 36(4), 193-224.
- 방하남·김기현(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세대간 변화와 불평등의 추이.” 한국사회학, 37(4), 31-66.
-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2003). 2003년 신입생 특성조사. 서울: 저자.
- 양정호(2003). “중학생의 과외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30(2), 261-283.
- 양정호(2004a). “공교육산업과 사교육산업의 발전방향.” 2004년 추계 한국산업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2-70.
- 양정호(2004b). “평준화와 학업성취: 실증적 증거들?” 교육사회학연구, 14(2), 151-174.
- 양정호(2005).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2), 121-145.
- 양정호(2006).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 추세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199-219.
- 오욱환(2000). 한국사회의 교육열: 기원과 심화. 서울: 교육과학사.
- 우천식·이경영(2005). 교육투자 기회 격차의 구조와 해소방안. 인적자원 협력망 워크숍 발표자료.
- 이명헌·김진영(2005). 사교육(과외)의 학습성취도 향상 효과에 관한 연구.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 이성립(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화가정학회지, 40(9), 143-159.
- 이성립(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 이승신(2002).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화가정학회지, 40(7), 211-227.
- 이영(2004). 가계특성에 따른 사교육비 분포. 교육개혁포럼 월례 발표 논문.
- 이정환(2002). “가족환경, 과외, 성적.” 한국사회학, 36(6), 195-213.
- 이종각(2003). 교육열 올바로 보기. 서울: 원미사.
- 이종태 외(2002).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주호·김선웅(2002). “학교 정책과 과외의 경제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8(2), 1-51.
- 장상수(2001). 한국의 사회이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전우홍·양정호(2004). “수능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연구.” 한국교육, 31(3), 157-184.
- 정진환(2004). “일본 학원교육의 동향과 그 시사점.”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81, 1-5.
- 한준상(2005). 국가과외. 서울: 학지사.
- 조선일보(2003.10.23). “사교육비 매년 조단위로 는다.” A1면.
- 한국교육개발원(2003.11.19).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한국교육개발원 보도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3.11.27). “사교육비 경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보도자료.
- Baker, D.P., Akiba, M., LeTendre, G.K., Wiseman, A.W.(2001). Worldwide shadow education: Outside-school learning, institutional quality of schooling, and cross-national mathematics achieve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3(1), 1-17.
- Bray, M.(1999). *The shadow education system: Private tutoring and its implications for planners*. Paris: UNESCO.
- Seth, M.J.(2002). *Education fever: Society, politics, and the pursuit of schooling in South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